

고수온·태풍 피해...전남 어업생산 4년만에 최저

올 3분기 18만6867t, 지난해보다 6.2% 줄어...수산자원 고갈 심각 다시마·전복·돔 등 해상양식 최대 낙폭...참조기·전어 어획량 급감

해마다 고수온이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이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남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8만686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408t(6.2%) 줄었다. 어업 생산 금액은 60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148억원) 감소했다.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어업 생산이 많은 곳으로, 전체 생산량(40만7983t)의 절반 정도(45.8%)를 차지한다.

전남 어업 3분기 생산량은 2014년 19만1434t에서 이듬해 17만3651t으로 저점을 찍

었다가 19만3457t(2016년)→26만3491t(2017년)→19만9275t(2018년)으로 오르락 내리락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18만6867t을 생산하면서 어업 생산량은 4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20만4262t) 보다는 8.5%나 적은 수치다.

어업별로 보면 전남 어업 생산량의 83%를 차지하는 천해양식 생산량이 14만6217t으로, 지난해보다 7.6%(-1만2057t) 줄어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일반해면 생산량은 3만8067t(-0.7%→281t), 내수면 2583t(-2.6%→68t)이었다.

주요 품종별로 보면 다시마 -7.6%, 참조기 -54.7%, 전어 -38.7%, 전복 -13.2%, 갈치 -

28.8% 등의 감소폭이 컸다.

국내 해조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지역은 지난 9월부터 '빙빙' '타파' '미탁' 등 3차례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며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다시마 천해양식 생산량은 12만720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274t)보다 7.6%(-1만474t) 줄었다.

전남이 대표 주산지인 전복과 돔도 태풍의 타격을 입었다.

올해 3분기 전복 생산량은 5650t으로 지난해보다 13.2%(-859t) 줄었고, 완도·진도지역 특산물인 돔은 1007t 생산되며 지난해보다 2035t(66.9%)이나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7-8월 여름철 고수온으로 해수면양식 작황 좋지 않았다"며 "특히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완도·신안지역은 다시마 생산을 일찍 종료했고, 전복류는 경기약화에

따른 보양식 수요 감소와 출하가능 적정 크기(kg당 9-11마리) 물량이 다소 부족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영광 해역 등에서 생산된 참조기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올 3분기 1606t 생산되며 지난해(3546t) 보다 어획량이 54.7%(-1940t) 급감했다. 전어는 458t 생산되며 지난해보다 289t(38.7%)이나 덜 잡혔고, 뱀장어 생산량도 5.7% 하락한 1953t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어는 1589t 잡히며 지난해보다 68% 생산량이 증가했고 부세(133.3%↑), 납치(19.0%↑) 등도 상대적으로 수확이 좋았다.

한편 올해 3분기 전국 어업 생산량은 40만798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6039t)보다 17.8%나 감소했다. 생산금액은 1조5971억원으로 5.8%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상승세 더딘 코스피...외국인 매도 행보 주목
12월 고배당주 매수보다 실적주 위주 대응을
한한령 해제 기대감 화장품·중국 관련주 상승

지난 27일 미국 3대 지수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과 미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과 일본 니케이 지수도 2만3500pt에 근접하며 최고치 돌파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8월 이후 빠른 반등세를 보이며 2150pt를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2100pt 이하로 하락했다. 여러 차례 언급됐듯이 올해 코스피 지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지수보다 중국 증시에 연동됐고 최근에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들 지수인 홍콩 H지수와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수급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 본토 주식보다 매매와 환전이 자유로운 홍콩 내 중국 상장기업과 중국 시장 연관성이 높은 코스피 지수를 연동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피 지수 약세도 외국인수급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금요일까지 17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순매도가 시작된 11월7일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9397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3109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에 영향이 매우 크다. 통상 외국인인 순매도 강화할 때 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통해 시장이 상승 펄리로 전환될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 '헷지'(공매매)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 선물시장에서 1만825억 계약 순매도를 보이며 누적 순매도로 전환되며 시장의 우려감을 확대시켰다. 지난주 26일은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리밸런싱 이벤트가 종료되는 날로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0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이벤트종료 이후 점진적인 수급개선을 기대했는데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11월은 통상적으로 펀드매니저들의 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특히 헷지펀드는 수익실현이 활발한 시기였다. 12월에는 변화를 기대하며 12월 외국인의 수급전환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필요 조건이므로 순매수 전환여부에 따라 시장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12월 중·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살아있고 11월 할로윈효과에 이어 12월에도 계절적 효과가 상당하게 존재해 왔으므로 11월부터 3월까지의 주식시장에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12월은 배당투자자에 대한 기대와 대주주지분요건 강화에 따른 매출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다. 12월에 배당투자자는 연말 배당락을 고려해 고배당주 매수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반면 대주주로 지정돼 해당종목 차익발생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대주주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주연대가 강하고 성장기대감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배당락 이후 대주주회피성 저매수 유입과 1월 효과를 고려한 종목선정에 관심이 필요하며 필요하며 매수시기는 12월 중반 이후가 적절하다.

이번 주 이벤트로 12월 4-5일 중국 왕이 외무장관이 5년만에 방한할 예정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첫 방문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와 중국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위비협상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해지 마찰로 한미일 공조에 틀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을 의식해 한국과 일본에 배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사드이후 한국에 INF에 대해 강한 경고와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관련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지만 후시 향후 INF 배치 상황이 강화된다면 이에 따른 대처도 필요하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한우·돼지고기 많이 드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은 지난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금융시장'에서 한우와 돼지고기 무료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은 지난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금융시장'에서 한우와 돼지고기 무료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NH로뱅크 4.0' 가입하고

의류관리기 받아 가세요

농협전남본부 15일까지 이벤트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모바일 앱 'NH로뱅크 4.0' 출시를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본부는 "고령 고객 맞춤형 앱으로 탈바꿈한 'NH로뱅크 4.0'을 지난 달 23일 출시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출시된 모바일 앱은 기존의 간편 송금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송금의 신속성과 간편함을 더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메인화면에 '시니어 모드'와 '금융상품' 메뉴를 신설했다.

또 비대면 금융상품인 '꼭! BASIC패키지'와 '예적금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들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24시간 365일 가입 가능하다.

'꼭! BASIC패키지'는 거래장 사용여부, 플랫폼 사용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예·적금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 가능하다.

전남본부는 신규 금융상품 가입고객이나 로푸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의류관리기, 여행상품권, 온수 매트 등 경품을 제공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 NH로뱅크 4.0은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NH로뱅크가 단순한 뱅킹 앱을 넘어 '농·축협 특화 비대면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농협 광주본부·전남본부는 간편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NH로뱅크' 출시 3년 2개월만에 가입자 광주 14만명·전남 26만명 등 40만명을 넘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병연 화순 도곡농협 조합장 '전남 농업인 대상'

서병연(사진) 화순 도곡농협 조합장이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9 전남 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에서 유통가공 분야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다.

4선의 서 조합장은 지난 2014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지역 소농·영세농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했다.

로컬푸드 매장 증축과 37억원이 투입된 제3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등 기반 시설을 확

충해 유통 환경을 개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 수도작(벼) 농가의 소득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17년 화순군농협연합미곡처리장을 인수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103개교에 무농약 쌀과 일반 쌀 7만3000포(1포 10kg)를 납품하며 판로를 키웠다. 쌀 고품질화를 추진해 도곡농협라이센서의 주력 상품을 '자연속 사랑순미'가 2019년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파프리카, 딸기, 복숭아 등



화순군 농특산물을 이마트와 롯데슈퍼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농협유통을 통해 전국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유통사 업장과 연계해 도곡농협 로컬푸드 도농상생점 3곳과 제후 푸드 8곳을 개장,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연 소득 1000만 원을 달성했다.

도곡농협은 지난 22일 제3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과 함께 '비전 2025'를 선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